### 국회 과방위원 20여명 광주 방문 'AI 현장 점검'

국정감사 위해 대거 방문 … 'AI 시범도시 도약' 광주 위상 반영 AI 집적단지·국가AI데이터센터·대형 실증 장비 등 기반 살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대거 광주를 찾아 현장 국정감사 시찰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의원 20여명이 국감과정에서 광주를 일제히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AI를 도시 성장축으로 삼아온 광주의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경기 남양주갑)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 의원단은 지난 17일 광주 북구 광주과학기술원 (GIST)과 국립광주과학관에서 현황 보고를 듣고핵심 연구 인프라를 점검했다.

이어 GIST 고등광기술연구원과 광주AI데이터센터 시뮬레이터를 차례로 둘러보며 연구·교육·실증으로 이어지는 지역 AI 전주기 생태계를 확인했다.

의원들은 AI 집적단지, 국가AI데이터센터, 대형 실증 장비 등 광주가 구축한 핵심 기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AI 2단계(6000억원) 추진 상황과 컴퓨팅 자원 확충, 데이터 개방·활용, 인재 파이프라인 강화, 실증-상용화 연계 등 과제를 예산·법제 개선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광주시는 국가AI데이터센터 구축과 기업 300여 곳 유치, 5만㎡ 부지 조성 등 전국 최상위권 AI 인 프라 확장을 강조했다.

시는 'AI 3대 강국의 견인차'를 내세워 지역 혁신 역량을 결집하고, 산업·행정·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찰 말미에 위원들은 광주AI데이터센터의 드

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실증 장비로 자율주행·스마트제조 적용 과정을 살폈다.

표준 데이터셋 상시 개방, 스타트업 저비용 활용 지원, 전력 등 운영비 절감 방안도 논의됐다.

광주시는 "AI 특화 인프라를 주력산업과 촘촘히 연결해 양질의 일자리와 기업 성장을 견인하겠다"

한편, GIST 현안보고에서 임기철 총장은 기초과 학연구단 전용 공간 리모델링을 위한 국비 지원과 AI 분야 신설 학과 운영을 위한 교원·행정 인력 확 충을 요청했다.

위원들은 "국가 예산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자체 재정 조달 전략과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을 주 문했다. 성공한 동문과 지역 기업의 기부 참여를 이 끌 민간 연계 방안, 기술이전·스핀오프 활성화, 연 구시설 공동 활용 등 자구 노력의 구체화가 필요하 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위원단은 GIST AI대학원 안창욱 교수팀이 개발 한 국내 유일 인공지능 작곡가 '이봄(EvoM)'의 피 아노 연주 시연을 관람했다.

사람의 표정을 인식해 감정과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작곡·실연하는 기술로, 현장에서는 예술·치유·엔 터테인먼트 등 융합 산업 확장 가능성에 주목했다.

광주시는 과방위와의 논의 결과를 내년도 예산· 법령 심사에 반영할 자료로 보완하고, 재정 다변화 ·민간 참여 확대 요구를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할 방 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17일 광주시 북구 첨단 3지구 국가AI데이터센터를 방문해 현장 국정감사 시찰을 진행했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제공〉

#### "한미 관세협상 대부분의 쟁점 실질적 진전 있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귀국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 를 방문하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방미 협의 결과에 대해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

섭본부장과 함께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양국이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다만 여전히 조율이 필요 한 부분이 남아있다"며 "이번 협의의 성과를 토대로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마무리가 가능한 상황이냐는 질문에는 "방미 전보다는 APEC을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답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를 10년간 분할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물음엔 "개별 적인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통 화스와프에 대해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규 모 대미 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 미 국의 이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광주과기원서 법인·연구비 카드 부정 사용 91건 적발

국회 과방위 제출 자료 부정 사용액 총 1259만원 4명 해임·1명 감봉 처벌

4대 과학기술원 중 한 곳인 광주과학기술원 (GIST)에서 법인·연구비 카드 부정 사용 사례 91 건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 과기원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도 법 인카드 19개를 이용해 6500차례, 110억원을 부정 결제한 연구원 등 3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과기원의 연구비 지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



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 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대 과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IST는 작년 7월 특별감사를 통해 법인(연구비)카드 사적 사용자 4명과 유흥성 비 용 지출자 1명을 적발했다.

이 중 연구비 카드 사적 사용자 4명은 해임된 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유흥성 비용 지출자 1명 은 감봉 처벌을 받았다. 이들의 연구비 카드 부정 사용액은 총 1259만원에 달했다.

카드 부정 사용은 회의록과 업무추진비로 집행 내역서 허위 작성을 통해 주로 이뤄졌다.

GIST 산하 한 연구소의 연구원 4명은 2021년 9월 이후 작년 6월까지 총 76차례(1105만8200원 상당)나 회의록을 허위 작성했다.

A연구원은 2022년 11월 27만원을 회의비로 사용하면서 같은 시간, 옆 식당에서 진행된 다른 회의 참석자 4명을 중복 기재하고 작년 5월 회의 때 숯불갈비 음식점에서 29만원을 회의비로 사용하면서 동일 시간, 동일 장소에서 진행된 다른 회의

참석자 4명을 기재하는 등 23건의 허위 회의록 작성이 확인됐다.

A연구원이 허위 작성했거나 허위 작성을 지시 한 36건의 금액은 583만4400원에 달했다.

KAIST도 작년 12월 이후 지난 6월까지 연구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직원 3명에 대해 특별감 사를 벌이고 있다.

KAIST 산하 한 연구소의 D연구원은 2022년 4 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카드 19개를 카드 돌려 막기와 상품권깡(법인카드로 상품권 구매·현금화 후 카드결제 대금 입금) 방식으로 약 6500건, 110 억원을 결제했다.

최민희 의원은 "과기원에서 법인카드와 연구비카드가 개인 지갑처럼 쓰이고 있는 건 충격적"이라며 "이는 일부 연구원의 일탈이 아니라 과기원은 물론 과기부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구조적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부정 사용이반복되고 있는 GIST에서는 총장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 "미국, 트럼프-김정은 회동 내부 논의"

CNN 보도, 북미 소통은 아직 없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김정 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방안을 미 행정부가 비공개 논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1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다만 다수 소식통은 실제 개최 가능성에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방한을 검토 중이며, 백악관은 미중 갈등 속 이번 순방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회담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미·북 간 소통은 사실상 중단됐고, 올해 초 미측 의 접촉 시도 서한도 북한이 수령하지 않았다는 전 언이다. 경호팀이 방한 사전 점검을 했지만 판문 점 답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PEC 계기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은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과 만 날 의향'을 밝힌 뒤, 김 위원장이 9월 최고인민회 의에서 대화 관심을 표명하면서 주목받았다. 백악 관은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 장을 재확인했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비정형 행보를 들어, 사전 조율 없이 SNS를 통한 '번개 회동'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정상은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와 판문점에서 세 차례 만난 바 있다.

또한 CNN은 다수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백 악관 내부 논의가 '가능성 점검' 수준일 뿐, 의전·의 제·장소 등 회담 운영을 위한 구체 계획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소식통 두 명은 행정부가올해 초 북측에 접촉 서한을 보냈지만 북한이 수령조차 하지 않아 답신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악관 경호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대비해 두 차례 방한해 동선을 점검했으나, 과거 회동 장소였던 판문점은 답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그럼에도 외교가 일각에서는 2019년 오사카 G20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김 위원 장에게 판문점 만남을 제안해 하루 만에 성사시킨 선례를 들어, 이번에도 '예고 없는 제안'이 재연될여지는 남아 있다고 본다. /연합뉴스

🤲 광주문화신협

# 광주문화신협이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